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유성경** · 이항심** · 황매향*** · 홍세희****

초 록

본 연구는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관련된 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진로장벽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을 선택하였고, 이들 변인들과 진로장벽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표집한 학업우수 여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모형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 존중감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이들 변인들과 진로장벽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둘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우수 여학생들의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이들의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양성성을 발달시키고, 또한 자아 존중감을 높여 결과적으로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수 여학생들에게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데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 여성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진로장벽을 다루기 위한 차별화된 개입전략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주제어 : 우수여성 진로장벽, 성역할정체감, 부모애착, 자아 존중감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KRF-2004-042-B00152)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이화여자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연세대학교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여성들은 학령기에는 남성들에 비해 높은 학업 성취를 보여 주지만, 일단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지속적인 진로발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구체적인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바,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 비율은 56.3%으로 OECD국가의 평균인 69.4%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더구나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비율은 OECD평균인 82.1%에 비해 훨씬 낮은 55%로 보고되고 있다(최정규, 김수경, 정옥진, 2001).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 인력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금재호(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를 전후하여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어 결혼과 자녀양육이라는 여성으로서의 발달과업 수행이 여성들의 진로발달 침체와 유의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 인력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근의 진로 심리학자들은 ‘진로 장벽(career barriers)’, 즉 여성들의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이제까지 여성들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여성들이 실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장애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의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은 실제 직업을 선택하는 특정 한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아정체성 발달과정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발달적 특성으로 파악해야 한다(Super, 1984; Swanson & Tokar, 1991). 이렇듯 진로장벽을 발달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진로 및 정체감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진로장벽 지각이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Silverman(1990)은 여성의 진로발달 양상이 남성들의 발달 양상과 다른 이유를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갈등적인 성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여성의 고유한 발달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는 성역할 정체감 형성이라는 본격적인 발달과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체감에 대한 갈등은 여자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학업우수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또래의 평범한 여자청

소년들 혹은 남자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성정체감과 관련하여 진로발달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rr, 1997; Kerr & Maresh, 1994; Klein & Zehms, 1996). 이들 보고에 따르면,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유능하다”는 것과 “여성이다”라는 것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일반적인 여자청소년보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업우수 여자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우수 여아들은 아동기에는 학업우수 남아들과 유사하게 적극적인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고,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많은 인지방략을 사용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래의 일반적인 여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Kelly & Cobb, 1991).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의 경우에도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모든 직업영역에 있어서 유의하게 높은 진로포부수준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정미, 황매향, 김지현, 2002). 그런데, 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학업에서는 계속 뛰어난 성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직업적 포부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Reis, 1991), 전통적으로 여성이 지배적인 직업에 대해서만 높은 포부수준을 보인다(황매향, 김지현, 유정미, 2003).

이제까지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직접적으로 다룬 경험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수 여성들의 진로발달, 진로성숙, 진로미결정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수 여성들의 부모들과의 관계(Betz & Fitzgerald, 1987; Blustein, 1991; Fassinger, 1990; O'Brien & Fassinger, 1993), 성역할 고정관념(Taber 1992; Ward, 1991), 낮은 자아존중감 (Hollinger & Flemming, 1988) 등이 우수 여성들의 진로발달 과정상의 특성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로 제안되고 있다.

부모와 건강하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는 것이 자녀의 진로발달을 일반적으로 촉진시키며(Blustein, Prezioso, & Schulthesis, 1995; Rainey & Borders, 1997), 여성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진로선택에 참여하는 과정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lustein, 1991).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녀들이 진로장벽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특히 중요한 영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흑인 여성의 진로발달을 질적으로 연구한 Flores와 O'Brien(2002)에 따르면 부모 애착경험이 인종차별 등 여러 가지 직업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O'Brien과 Fassinger (1993)도 부모와의 애착 경험의 충분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정체감 문제와 함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부모애착이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녀들의 진로장벽 수준을 낮추고,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 조금 더 나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부모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부모애착의 관계를 분석한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1999)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여학생의 경우 아버지애착이 진로미결정을 의미있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 진로결정 효능감을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애착이,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녀들의 성에 따라 부모 각각에 대한 관계지각이 진로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때, 어떤 개인 심리적 변인을 통하여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 존중감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매개변인 설정의 근거는 Kerr와 Maresh(1994), Klein과 Zehms(1996) 등의 연구들로 이들에 따르면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의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역할이 양립가능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진로결정 장애요인을 적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가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본격적인 갈등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때, 청소년 시기에 동성의 부모, 이성의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또한 자녀들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Haigler, Day와 Marchall(1995)은 양성적 개인들이 다른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개인들보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 더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후 Forbes와 Adams-Curits(2000)은 Haigler등의 이전 연구를 반복한 결과, 이전 연구와는 달리 양성적 개인들이 이성의 부모에게만 높은 애착을 보였고, 동성의 부모에 대해서는 높은 애착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양성성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Arditto, Godwin와 Scanzoni(1991)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에는 모애착이,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에는 이성부모인 부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어느 쪽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보다 주된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제기의 근거를 제공한다.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장벽 수준간의 관계 설정은 성정체감에 관한 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성정체감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양성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성에 적절한 행동을 하려는 내면적인 동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덜 구속적인 경향이 있으며(Bem, 1974; Lamke, 1982), 그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성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Spence & Helmrich, 1978)과 양성성 요인 중 남성성 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Whitely, 1983)으로 연구결과들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우수 여성의 경우, 진로결정의 맥락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떤 요인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진로장벽 지각수준을 낮추는지는 아직까지 분석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성 및 우수여성의 진로발달 및 장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데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누구와의 애착관계가 보다 중요한 변인인가,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또는 남성성만이 자아존중감 수준과 유의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업우수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부모와의 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의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학업 우수 여자 청소년의 진로장벽 수준은 부모 각각에 대한 애착, 남성성과 여성성의 수준 및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양부모 모두와의 애착,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역할 정체감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장벽 지

각을 낮춘다고 보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성 부모와의 애착이 성역할 정체감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경쟁모형 1, 그리고 남성성만이 자아존중감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쟁모형 2를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이 어느 모형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여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 표집에 있어서는 가정 형편 및 교육 환경의 지역차를 감안하여 강북, 강남, 경기 지역에서 무선표집하였다. 학업 우수아의 선발 기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전체 석차 10등 이내의 학생이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학생이거나 일반고에서 전교 석차 10등 이내의 학생이었다. 표집인원은 학교별로, 초등학교 143명, 중학교 187명, 고등학교 175명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학교급별 분포

학 교 급	빈 도 (비율)
초등학생	143 (28.3%)
중 학 생	187 (37.2%)
고등학생	175 (34.5%)
전 체	505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한국형 청소년 부모애착 검사, 한국형 성역할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검사 등 모두 4가지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1) 부모애착 검사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수준을 각각 따로 측정하기 위해 유성경과 박승리(2006)가 타당화한 한국형 청소년 부모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IPA¹⁾)를 사용하였다. IPA는 신뢰, 의사소통, 소외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소외는 친밀감을 역으로 측정하고 있다. 검사는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성경과 박승리(2006)의 연구에서 IPA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모애착 .93, 부애착 .94로 보고 되었다.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모애착의 경우 .88, 의사소통 .84, 소외 .77이었고, 부애착의 경우는 신뢰 .88, 의사소통 .87, 소외 .82였다. 본 연구에서 IPA의 Cronbach α 모애착은 .91 부애착은 .91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 정체감 검사

1990년에 정진경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KSRI)를 유성경과 임영선(2005)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정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em(1974)이 고안한 방식에 근거했는데, 기존의 검사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하나의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놓았다면, Bem(1974)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호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을 재는 것으로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각각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 중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독립적인 변인으로 놓고서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의 진로발달상에서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성정체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한다. 유성경과 임영선(2005)이 보고한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Cronbach α 는 .78에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의 경우 .86이고, 여성성의 경우 .88이다.

1) IPA는 Armsden & Greenberg(1987)가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에서 부모애착 척도를 한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3)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장은영(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개의 기능, 행동 또는 구체적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하여 포괄적으로 피험자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척도로써,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 존중의 정도와 자기 승인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에서 “전혀 아니다” 이면 1점, “매우 그렇다”이면 4점이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가 있다. 부정적 예시문항은 역채점 되어서 산출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Cronbach α 는 .84이다.

4) 진로장벽척도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7개 요인이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황매향 외, 2005).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에서 느끼는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신뢰도는 황매향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가 .67~.86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3. 분석방법

연구 분석방법으로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고, AMOS 5.0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2) 구조모형 검증

부모에 대한 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이 우수한 여자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 중 RMSEA와 TLI가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유용한 적합도 지수이다. RMSEA는 절대적 적합지수로 .05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며 상대적 지수인 TLI, NFI, CFI는 .90이 넘으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내재화된 모형일 경우 카이제곱검증을 통해서 모형과 실제 자료가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나, 이 경우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모형을 쉽게 기각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 분석 결과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치를 계산하였다. 측정 변인, 즉 각 척도의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척도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수=505

측정 변인		평균 (표준편차)
진로	자기이해의 부족	2.01(.68)
장벽	자신감의 부족	1.86(.42)
	성역할갈등 및 성차별	1.40(.36)
	중요한 타인과 갈등	1.68(.4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90(.57)
	진로 및 직업정보부족	2.10(.62)
	경제적 어려움	1.67(.47)
	자아존중감	2.93(.46)
성역할	남성성	2.75(.38)
정체감	여성성	2.71(.40)
부애착	신뢰	3.17(.48)
	의사소통	2.69(.56)
	소외(역채점)	2.99(.56)
모애착	신뢰	3.20(.47)
	의사소통	2.99(.53)
	소외(역채점)	3.08(.51)

<표 3>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례수=505

	진로장벽	자아존중감	남성성	여성성	부애착	모애착
진로장벽	-					
자아존중감	-.54***	-				
남성성	-.48***	.55***	-			
여성성	-.20***	.40***	.27***	-		
부애착	-.51***	.51***	.39***	.30***	-	
모애착	-.45***	.47***	.29***	.25***	.63***	-
평균	1.80	2.93	2.75	2.71	2.95	3.09
표준오차	.39	.46	.38	.41	.49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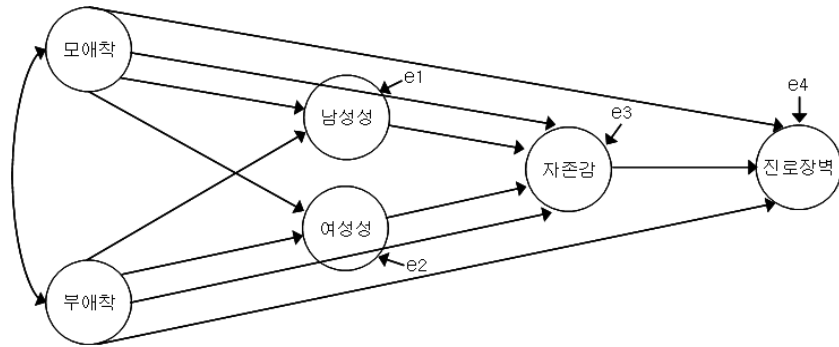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4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진로장벽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진로장벽, 남성성과 진로장벽,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이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좋고, 남성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남성성, 자아존중감과 여성성,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관계가 좋고, 성정체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잘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남성성도 잘 받아들일 때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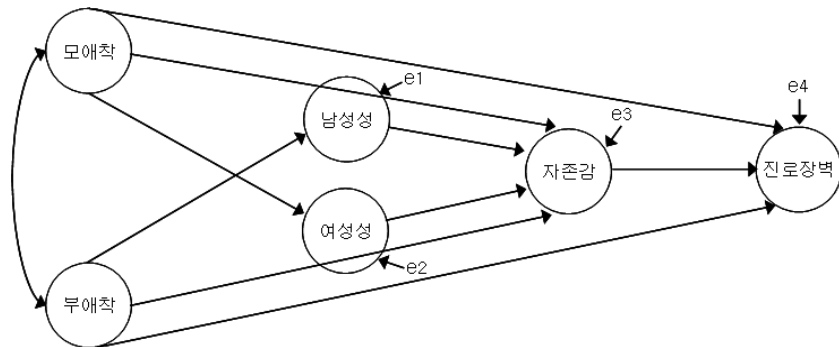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여학생들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애착과 성역할 태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변인들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서 여성 및 우수여성의 진로발달 및 장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피본 바에 따르면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볼 때, 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데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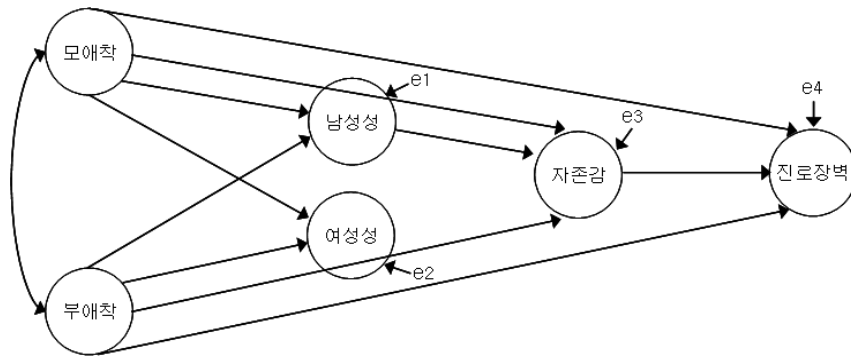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의 연구모형

또한 본 연구에서 지지하는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반증하기 위해 두 가지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경쟁모형은 성역할 정체감에서 여성성에는 모애착만이 영향을 미치고, 남성성에는 부애착만이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모형은 선행연구들에서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에는 모의 애착이,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에는 이성부모인 부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예, Arditto, Godwin & Scanzoni, 1991)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 부-남성성, 모-여성성, 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의 경쟁모형 1

두 번째 경쟁모형(그림3)은 남성성만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자아존중감에 대해 전통적 일치 모형, 양성성 모형, 그리고 남성성 모형의 이론 중 양성성 모형 다음으로 많은 지지가 되고 있는 남성성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성 모형에서는 남성성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히 관련되며 여성성 요인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예, Whitley, 1983)를 바탕으로 두 번째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 부모애착, 남성성-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의 경쟁모형 2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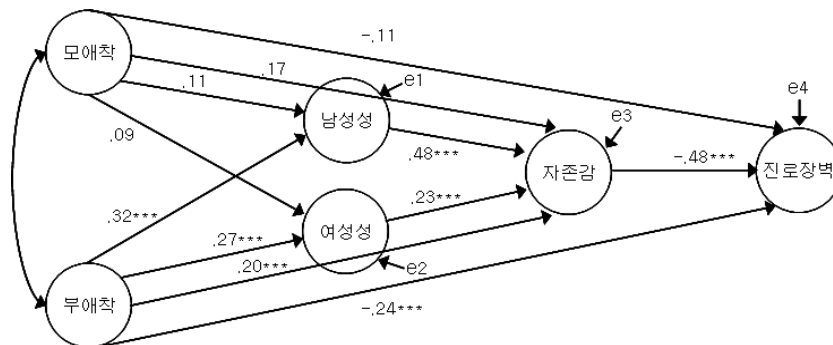
Model	자유도	χ^2	TLI	CFI	NFI	RMSEA
연구모형	237	840.0	.910	.923	.896	.071(.066-.076)
경쟁모형1	239	857.0	.909	.921	.894	.072(.067-.077)
경쟁모형2	238	871.2	.906	.919	.892	.073(.068-.078)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각의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적합도에 있어서는 연구모형, 경쟁모형1, 경쟁모형2 순으로 좋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모형과 첫 번째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카이제곱의 차이값은 17.9이고, 자유도 차이값은 2로 유의도 수준 $\alpha=.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한 차이값인 5.99를 넘는다. 그러므로 연구 모형과 첫 번째 경쟁모형은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즉, 연구모형이 첫 번째 경쟁 모형에 비해 자료를 더 잘 설명하므로 연구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모형과 두 번째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카이제곱의 차이 값은 31.2인데, 자유도 차이 값은 1로써 $\alpha=.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값 3.84를 훨씬 넘는다. 따라서 두 번째 경쟁모형 또한 연구모형에 비해 자료의 설명력이 덜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10, CFI=.923, NFI=.896, RMSEA=.071 로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카이제곱 검증에서도 영가설을 기각하여, 연구모형이 경쟁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계적 결과들이 연구모형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토대를 두고 있는 이론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도 경쟁모형보다는 연구모형이 보다 적합하므로 결론적으로 연구모형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이론적,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모형과 각 계수의 표준화된 추정치는 아래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4]와 같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서로 유의미한 관련성($\beta=.142$)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애착은 우수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기 자아존중감과 종속변인인 진로장벽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우수한 여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남성성($\beta=.197$)과 여성성($\beta=.212$)둘 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우수 여학생들은 여성성을 더 잘 받아들였고, 또한 동시에 남성성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높이고($\beta=.159$) 또한 진로장벽을 낮추는 데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beta=-.222$). 즉, 우수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아버지와 애착이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 양성성을 잘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은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남성성 $\beta=.623$, 여성성 $\beta=.237$),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데 유의미한 영향($\beta=-.562$)을 미치고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진로장벽의 구조모형(표준화계수)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도 면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진로를 결정할 때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한 여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니는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수한 여학생들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에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 자아존중감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적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진로장벽 사이의 각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성정체감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발달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모애착은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양성적 성역할, 즉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한 남녀 대학생들은 이성의 부모에게만 높은 애착을 나타낼 뿐 동성의 부모에 대해서는 높은 애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orbes & Adams-Curtis, 2000).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수한 여자청소년들

에게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발달시켜 양성적인 성격체감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이 채택되었지만, 아버지의 애착만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능력이 우수한 여아일 경우에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시사한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보다 유의하게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유교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부여하는 절대적 권위, 여성으로서 딸들이 차지하는 가족 내 심리적 지위(Slote, 1998)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유교적 문화에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며, 이러한 권위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딸은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도 있는 심리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동일한 아버지의 양육 행동일지라도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아들과 딸은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Crase & Elord, 1980)가 있으므로 남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해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애착과 진로장벽 간의 관계를 보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데에는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아버지와 애착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이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Blustein, Prezioso, & Schulthesis, 1995)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여학생들의 진로발달에서 부애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이영순, 1999; 이은경, 2001)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 결과는 O'Brien과 Fassinger(1993)의 연구에서 높은 진로 포부와 진로에 강한 관심을 드러내는 여자 고등학생은 애착과 동시에 “엄마로부터 약간의 독립”을 드러낸다고 한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적절한 애착이 형성되고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진 여아들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 우수 여아들의 경우, 양육자로서의 어머니보다는 사회적 활동에 성공한 아버지를 자신의 진로 발달의 역할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모델로서의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때 진로장벽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여아의 양육과 진로지도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동시에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보다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와 독립이 우수한 여아들의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넷째,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 결과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성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여성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여성성도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여자청소년들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발달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관계를 살펴보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기확인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 사회적인 요구 등에 영향을 받기 쉽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적 선택을 하기 어렵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Korman (1967)의 주장과 일관된 결과이다. 특히 우수한 여성들의 경우에 높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되는 만족스런 직업적 선택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진로장벽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애착은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진로장벽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부애착은 우수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을 더 발달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성을 잘 발달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잘 발달된 여성성과 남성성 둘 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애착은 우수한 여자 청소년들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성역할 정체감을 발달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청소년 지도 및 조력 서비스에 주는 의의를 정리해 보면,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우수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에 관한 이론 개발의 기

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이가 우수한 여성인재 특히 진로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진로발달 분야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성차가 강조되어 왔으나 생물학적 성차 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Cano, 1984).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역할 정체감과 개인의 진로발달을 관련 시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송자,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진로장벽과 그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으며, 변할 수 없는 성차에 집중하기보다 우수한 여자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바람직한 성정체감이 무엇이고, 그러한 성정체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입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기존의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진로 포부를 종속 변인으로 놓고, 진로장벽을 매개 변인으로 많이 보았을 뿐 진로장벽 자체를 종속 변인으로 놓고 본 연구들이 거의 없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다른 관련 변인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은 완전한 이론적 모형이 아니고 기존 여성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들을 포함시킨 탐색적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한 여부와 이 모형이 가지는 특성들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들이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금재호(2002). 여성인력과 생산성. 한국생산성학회, 제16권 제1호, pp.25~56.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박승리(2006).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모애착 척도의 타당화 연구. 미발표논문.
- 유성경·임영선(2005). 초·중·고등학생 대상 한국형 성역할 검사. 미발표 논문.
- 유정이·김지현·황매향(2002). 초등학교 학생 직업 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pp.1~39.
- 이송자(1994). 국민학생의 진로의식과 자아개념 및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선·김정희·이영순(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제4권 제1호, pp.137~161
- 장은영(2001).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 양상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한건환·전우정(200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 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5권 제3호, pp.93~108.
- 최정규·김수경·정욱진(2001). 우먼코리아 보고서.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한국여성인력개발원(1999). 직업환경의 변화와 여고생의 진로지도. 서울: 한국여성인력개발원.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 황매향·김지현·유정이(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2호, pp.3~12.
- 황매향·이은설·유성경(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검증. 상담학연구, 제6권 제4호, pp.1205~1223.

- Arditti, J. A., Godwin, D. D., & Scanzoni, J.(1991). Per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 and young women's gender role traits and preferences. *Sex Roles, Vol. 25*, pp.195~211.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No. 2*, pp.155~162.
- Betz, N. E., & Fitzgerald, L. F.(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8 No. 1*, pp.39~50.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siss, D. P.(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3*, pp.416~432.
- Cano, L., Solomon, S., & Holmes, D. S.(1984). Fear of success: The influence of sex-role identity, and components of masculinity. *Sex roles, Vol. 10*, pp.341~346.
- Crane, S. J., & Elrod, M. M.(1980). Sex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parent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Vol. 46*, pp.719~727.
- Fassinger, R. E.(1990). Causal models of career choice in two sample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36*, pp.225~248.
- Flores, L. Y., & O'Brein, K. M.(2002).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9 No. 1*, pp.14~27.
- Forbes, G. B., & Adams-Curtis, L. E.(2000). Gender role typing an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2*, pp.258~260.

- Haigler, V. F., Day, H. D. & Marshall, D. D.(1995). Parental attachment and gender role identity. *Sex Roles, Vol. 33*, pp.203~220.
- Hu, L.-Z.,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pp.1~55.
- Kerr, B. A.(1997). *Smart girls: A new psychology of girls, women, and giftedness* (revised ed.). Scottsdale, AZ: Great Potential.
- Kerr, B. A., & Maresh, S. E.(1994). Career counseling for gifted women. In W. B. Walsh and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pp.197~235). Hillsdale, NJ: Erlbaum.
- Klein, A., & Zehms, D.(1996). Self-concept and gifted girls: A cross sectional study of intellectually gifted females in grades 3,5,8. *Roeper Review, Vol. 19 No. 1*, pp.30~33.
- Korman, A. K(1967).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51 No. 1*, pp.65~67.
- Lamke, L. K.(1982). The impact of sex-role orientation on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52*, pp.1290~1298.
- O'Brien, K. M., & Fassinger, R. E.(1993). A casu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0*, pp.456~469.
- Rainey, L. M., & Borders, L. D.(1997). Influential factors i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 of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4 No. 2*, pp.160~172.
- Reis, S. M(1991). The need for clarification in research designed to examine gender differences in achievement and accomplishment. *Roeper Review, Vol. 13 No 4*, pp.193~198.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lverman, L. K.(1990). Social and emotional education of the gifted: The discoveries of Leta Hollingworth. *Roepers Review*, Vol. 12 No. 3, pp.171~178.
- Slote, W.H.(1998). Psychocultural dynamics within the Confucian family. In W.H. Slote & G. DeVos (Eds.), *Confucianism and the Family* (pp.37~51). N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pence, J. T., Helmreich, R.(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dimensions, correlation and antecedents*. Astin, TX: Texas University Press.
- Super, D. E.(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pp.169~191). San Francisco: Jossey-Bass.
- Swanson, J. K., & Tokar, D. M.(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38, pp.92~106.
- Whitely, B. E.(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pp.765~778.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Model of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Yoo, Sung-Kyung* · Lee, Hang-Shim* · Hwang, Mae-Hyang** · Hong, Se-Hee***

For the purpose to examine the career barrier of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this study us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explore the influence and structure of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Participants were 505 talented female students in Seoul and Kyungkido. The data were analyzed with Pe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AMOS 5.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1.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and self-esteem were positively related each other. However, career barrier were negatively related to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and self-esteem.
2. The study of the structural model in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supported the cross sex parental attachment is more powerful influence than homo sex parental attachment. Besides, Among androgyny gender role model and masculinity gender role model on self-esteem, androgyny gender role model accounted for self-esteem better

* Ehwa Womans' University

**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Yonsei University

than Masculinity.

In conclusion, the attachment to father can positively influence on major variances such as gender roles,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related career development of talented female students. It was also suggested that both masculinity and femininity were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the self-esteem and as a result, elevated self-esteem lowered perception of career barrier.

Key Words :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career barrier, career development

투고일 : 9월 14일, 심사일 : 10월 25일, 심사완료일 : 10월 25일